

자동차산업

현대·기아차 1월 미국, M/S 증가세 유지

자동차/부품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02. 6098-6690
Joonsung.kim@meritz.co.kr

1월 미국 산업수요 115만대 (-1.0% YoY), SAAR 1,690만대 (-1.9% YoY)

1월 미국 Light-vehicle 판매는 연방정부 폐쇄 장기화와 중서부 지역 기록적 한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년동월 대비 소폭 감소한 115만대를 기록했다 (영업일수는 25일로 전년과 동일). 다만, 산업평균 거래가격은 긍정적 경제 지표 유지 기조 속 \$34,274 (+1.9% YoY)로 역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.

Light Truck 수요성장 지속 (+0.3% YoY)됐으며, 판매비중은 69.6%로 1월 최대치를 기록했다. Car 수요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 유지됐다 (-4.0% YoY).

주요 브랜드 YoY 판매성장률: Toyota -6.6%, Nissan -18.5%, Honda +1.5%, Subaru +3.9%, GM -6.9%, Ford +7.1%, FCA +2.5%, BMW -6.3%, Mercedes -13.8%, VW -3.0%

현대차 4.2만대 (+1.9% YoY), 판매점유율 3.7% (+0.1%p YoY)

신차효과를 통한 SUV 판매개선 (+37% YoY)으로 전년동월 대비 판매 개선과 점유율 증가를 실현했다. SUV 판매비중은 51%였으며, 지난 12월 50%를 처음으로 넘어선 이후 두 달 연속 유지 중이다.

Kona가 5,696대 (18년 3월 출시)로 판매호조를 유지 중이며, Santa Fe 또한 6,212대로 +3% YoY 판매 (Fleet 제외 Retail은 +20%)를 기록했다.

기아차 3.7만대 (+4.9% YoY), 판매점유율 3.3% (+0.2%p YoY)

SUV 라인업의 판매호조를 통해 판매 및 점유율 개선을 기록했다. 스포티지 (5,963대, +4% YoY), 쏠렌토 (6,726대, +10% YoY), 카니발 (1,348대, +29% YoY)이 선전했으며, 신차 출시를 한 달 앞둔 쏘울이 재고물량 출하를 통해 높은 판매증가를 기록 (7,101대, +20% YoY)했다.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2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(DR, CB, IPO, 시장조성 등)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 당사는 2019년 2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2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: 김준성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